

주한일본대사 주최 간담회 개최

우리협회 회장단은 지난 7월 5일(화) 일본대사관저에서 주한일본대사 주최로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 김상하(金相廈) 명예회장(삼양사 회장), 김운(金鎭) 부회장(삼양사 회장), 김희용(金熙勇) 부회장(동양물산기업 회장),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세영(朴世英) 부회장(한국팬트랜드 회장), 서민석(徐敏錫) 부회장(동일방직 회장), 설원봉(薛元鳳) 부회장(대한제당 회장), 이운형(李運珩) 부회장(세아제강 회장), 최용권(崔用權) 부회장(삼환기업 회장), 이길현(李吉鉉) 감사(경원 회장) 등 회장단 20명(부부동반)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다카노 토시유키(高野 紀元) 주한일본대사, 우라베 토시나오(卜部 敏直) 총괄공사, 야마모토 에이지(山本 栄二) 경제공사, 세오 마사츠구(瀬尾 正嗣) 참사관, 아고 신페이(吾郷 進平) 서기관, 고바야시 노리코(小林 倫子) 서기관 등 9명(부부동반)이 참석하여 한일 양국간의 협력분위기 조성과 경제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누었습니다.



<2005. 2. 15 주한일본대사 초청간담회>

이 자리에서 다카노 대사는 1998년부터 금년 2월까지 우리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김상하 명예회장의 노고에 감사하고, 새롭게 중책을 맡으신 조석래 회장께 활약과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한편, 조석래 회장은 2003년 1월에 부임하여 7월말로 귀임하게 된 다카노 대사에 대해 그동안의 한일양국의 우호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한 업적에 경의를 표하고 귀임하더라도 한일간 진실된 관계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습니다.

제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 2005년 7월19일(화)~20일(수) 경상북도 경주시 호텔현대경주에서 ~



우리나라의 동해안 4개 자치단체(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와 일본 호쿠리쿠(北陸 : 니이가타(新潟)현, 도야마(富山)현, 이시가와(石川)현, 후쿠이(福井)현)지역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간 경제발전과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 1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오는 7월 19일(화)~20일(수) 경주시에서 개최됩니다.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는 금년이 제6회 짝로 본 회의에서는 환동해권 8개 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구축, 산업·기술교류, 공동조사연구 등 지역간 교류 촉진을 위한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으로 있으며, 경제교류회의와 병행하여 한일 기업간 상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측 상담회참가기업 : 7page 참조>



※ 호쿠리쿠(北陸) 지역

- 호쿠리쿠(北陸)지역은 동해(일본해)쪽의 **도야마(富山)현**, **이시가와(石川)현**, **후쿠이(福井)현** 3개현을 지칭
 ⇒ 일본은 협력대상지역에 **니이가타(新潟)현**를 포함시켜 4개현
- 호쿠리쿠 4개현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 면적은 전국의 6.7%, 인구는 4.4%, GRDP는 4.3% 차지
 - 4개현의 현내총생산은 오스트리아, 스웨덴과 비슷한 규모
 - 또한, 동해(일본해) 연안지역의 주요항만인 니이가타항, 후스키(伏木)도야마항을 포함하고 있어 동해(일본해)에서의 무역거점으로 활용 가능
- 호쿠리쿠(北陸)지역은 금속공업, 기계공업(전기기기, 일반기계), 섬유, 식료품, 의약품이 발달
 - 단, 전국에 비해 **수송용기계의 비중은 낮음**. 이는 호쿠리쿠에도 자동차 부품관련업체들은 입지했지만, 대기업인 조립업체가 입지하지 않은 것이 그 요인인 것으로 지적됨



세토 유조(瀬戸 雄三) 일한경제협회 회장 방한

일한문화교류전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수)에 방한한 세토 유조(瀬戸 雄三)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예방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제4차 한중일 비즈니스포럼 개최안내

한국·중국·일본 3국간의 협의체인 한중일 비즈니스포럼의 네 번째 회의가 오는 **10월 13일(목)~14일(금)**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측은 전경련, 일본측은 일본경단련, 중국측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되는 금번 포럼에는 韓中日 주요 경제인 150여명, 섬유·기계·전자·철강·석유화학·자동차·물류 등 7개 업종 관계자 230여명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韓中日 FTA 전망과 과제』, 『韓中日 Business 원활화 과제』, 『韓中日 산업간 협력강화』 등의 의제로 열띤 토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회원 및 기업인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9월중에 초청장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전경련 국제협력실 정봉호 과장
Tel. 02-3771-0220

◇ 제4차 한중일 비즈니스포럼 일정(안)

일시	내용	장소
10. 13	19:00~21:00 리셉션 및 환영 만찬(공연 포함)	2층 크리스탈볼룸
10. 14	개회식	2층 크리스탈볼룸
	09:00~09:40 3국 대표 개회인사	"
	내빈 축사	"
	09:40~10:50 제1세션 <한중일 FTA 전망과 추진과제>	"
	10:50~12:00 제2세션 <①안 : 한중일 business환경 비교와 전망 ②안 : 東北亞 지역개발 현황과 과제>	"
	12:00~13:30 오찬	3층 사파이어볼룸
	13:30~14:40 제3세션 <현장의 한중일 비즈니스 애로>	2층 크리스탈볼룸
	15:00~17:00 분과포럼 <한중일 산업협력 강화방안> *7개 업종포럼 및 발전포럼 개최	36·37층 회의실
	폐회식	2층 크리스탈볼룸
	17:30~18:40 분과포럼 개최결과 보고 공동성명 채택 3국 대표자 폐회인사	"
	19:00~20:30 주요 참석자 만찬	미정

日本은 지금...

러시아 投資, 日本企業이 움직인다!

<토요타 자동차 起工式, 年20만대 생산>

일본 기업의 對러시아 비즈니스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토요타자동차는 14일, 제 2의 도시 산쿠토펬테르부르크에서 자동차 공장 기공식을 거행했다. 신흥 시장국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중에서는 중국에 비해 낮은 감은 있지만 景氣 호조를 배경으로 일본기업의 진출은 증가하고 있다. 일본 메이커로서 과거 이래 최대인 토요타의 투자가 對러시아 비즈니스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푸틴 大統領 참석>

기공식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森 喜郎(모리 요시히로) 前수상도 참석, 양국의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협력에는 커다란 가능성이 있다. 일본 산업계의 지도자는 토요타에 이어 계속 진출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新공장은 2007년 12월부터 주력 세단 ‘카무리’를 생산한다. 당초는 년 생산 2만대, 조속한 시기에 년 5만대로 끌어 올릴 계획이었지만, 奥田(오쿠다) 토요타자동차 회장은 기공식에서 “최대한 빨리 유럽 수출시장을 겨냥하여 20만대 체제로 가동하고 싶다”고 표명했다. 투자액은 150억엔으로 미래의 확장에 대비하여 220헥타르의 토지를 확보했다.

<部品 회사들 줄이어 進出>

토요타의 현지 생산은 그룹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재촉한다. 러시아에는 고품질의 부품을 공급하는 메이커가 적기 때문에 토요타는

부품 회사들에 진출을 타진, 덴소社 등이 공장건설의 검토에 들어갔다. 초기에는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갖고 들어와 녹다운 방식을 채용하기 때문에 부품 메이커가 진출하는 것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현지 조달을 시작하는 2009년 전후가 될 것이다”(그룹 간부)고 예상한다.

판매 거점도 정비한다. 그룹의 豊田(토요타)통상은 판매점을 현재의 4개점에서 2006년말까지는 9개점으로 확대, 이 중에 ‘럭세스’ 전문점을 모스크바에 3개점 出店할 방침이다. 日産(닛산)자동차도 2007년도 말까지 ‘인취티’의 판매망을 구축. 마쯔다는 2005년도 내에 판매 총괄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 투자배경에는 好調를 보이고 있는 經濟. 일본 기업은 러시아를 자원 대국으로 정의해 왔지만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동반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一大消費國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伊藤忠(이또쥬)상사의 小林 榮三 社長). 인구 약 1억4천만명의 시장의 변모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세계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는 줄이어 현지 생산에 착수했다. 이전에 포드 모터, 제너럴 모터즈, 프랑스 르노, 독일 BMW, 한국의 현대자동차 등이 진출. 독일 다임러 클라이슬러는 금년 가을에 공장을 가동시킨다.

2004년의 승용차 판매 대수(중고차 포함)는 약 180만대. 부유층의 확대에 동반하여 국산차로부터 외제차로의 시프트(Shift)가 진행되어 수입 신차의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80% 증가한 35만대. 일본으로부터 러시아로의 수출액은 2004년도에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3,597억엔이 되었다.

<NEC도 携帯電話로>

러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자동차 메이커만은 아니다. 산쿠토펬테르부록크에 이미 고정 전화용 교환기의 제조·판매 합작 회사를 갖고 있는 NEC는 금년 가을부터 휴대전화기의 판매도 시작한다. 민간 조사회사에 의하면, 러시아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3월말 시점에서 8,500만명을 넘어 2003년도末에 비해 약 2.4배로 확대됐다. “2006년도 이후에는 보급이 예상되는 제3세대 휴대 전화기로 단번에 攻勢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디지털 가전 등 고액 상품에 대한 소비 의욕도 높아지고 있다. 소니의 현지 법인은 두 자리 수의 수익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박막형TV와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의 수요가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단, AV(음향·영상) 가전분야에서는 삼성전자 등 한국勢가 先行하고 있기 때문에 松下(마쯔시타)전기산업은 작년 가을 모스크바에 시장 조사와 판촉활동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 新회사에서 가전분야의 판로를 개척하고 2006년에 러시아에서의 松下 그룹의 판매액을 현재의 2배인 1,000억엔 넘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徵收. 政爭 等 리스크도>

러시아에서는 매크로(Macro) 경제는 안정

을 유지하고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세무당국의 과도한 徵收 등이 새로운 걱정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담배산업(JT)의 러시아 법인과 大陸무역(본사 동경)의 러일 합작회사 모두 작년 러시아 세무 당국의 엄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을 동반한 대규모 조사와 회계 관행을 무시한 수사 수법에 일본계 기업 사이에서는 불안이 퍼져있다.

일본기업 뿐만이 아니다. 푸틴 정권은 영국의 BP와 러시아의 석유 대기업의 합작회사 TNK-BP社에 2001年分の 追徵 課稅로서 약 10억 달러의 지불을 요구했다. 외국 기업이 러시아의 유전과 천연가스 개발에 참가하는 경우의 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 개정, 러시아의 우량자원 개발에 대한 신규 참여는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당국의 활동은 푸틴 정권이 석유회사인 뉴-코스를 사실상 해체하기 시작하고서부터 활발해졌다. 이를 계기로 관료에 의한 기업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대통령 측근 그룹간의 파벌 싸움으로 필요한 개혁의 결정과 실시가 늦어지는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경제성장의 원천인 수출의 3/4은 천연 자원과 금속이 점하고 있지만 에너지 산업에의 의존은 시세 급락시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5. 6>

6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한 日中貿易

▶ 2004년도 일본의 對중국 무역액은 전년 대비 26.9% 증가한 1,680억달러(1달러 = 108.3엔)
수출은 전년대비 29.0% 증가한 738억달러, 수입은 동25.3% 증가한 942억달러로 대중 무역적자는 204억달러(전년보다 약간 증가)

▶ 일본의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2000년의 6.3%에서 2004년에는 13.1%, 수입의존도는 14.5%에서 20.7%로 상승

▶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율은 2000년도의 10.0%에서 2004년도에 16.5%로 상승해 일본의 최대무역상대국인 미

図表1 日中貿易の動向 (2004年)

(億ドル, %)

日本の対中輸出				日本の対中輸入			
	金 額	シェア	伸び率		金 額	シェア	伸び率
電気機器	193.9	26.3	19.8	機械機器	371.4	39.4	32.6
一般機械	170.3	23.1	33.6	繊維製品	201.8	21.4	13.1
化学製品	91.6	12.4	38.5	食 料 品	74.1	7.9	21.5
金属および同製品	71.3	9.7	36.2	金属および同製品	50.2	5.3	59.0
輸送用機器	41.8	5.7	9.6	鉱物性燃料	32.4	3.4	28.7
精密機器	39.7	5.4	44.2	化学製品	30.4	3.2	36.3
そ の 他	129.7	17.4		そ の 他	181.9	19.4	
合 計	738.3	100.0	29.0	合 計	942.2	100.0	25.3

(資料) 財務省統計

국(동기간 25.0%에서 19.3%로 저하)과의 차이가 줄어들음

▶ 품목별 對중국 수출

- 機械器機 관련이 전체의 60%를 차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음향영상기기부품이 각각 전년대비 12.2%, 15.2% 증가
- 수송기계에는 있어서는 일본자동차메이커에 의한 중국에서의 본격적인 생산 확대에 따라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33.1% 증가
- 일반기계의 경우 중국국내의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개발, 설비투자확대에 따라 33.6% 증가
- 철강 및 알루미늄판, 동, 금속제품 등을 포함한 금속 및 동제품이 전년대비 36.2% 증가

▶ 품목별 對중국 수입

- 최대수입품목인 사무용기기, 퍼스컴 관련, 디지털가전제품, 휴대전화 등의 최종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機械器機가 전년대비 32.6% 증가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세어는 39.4%로 상승
- 섬유제품은 전년대비 13.1% 증가. 일본의 섬유제품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율은 2003년의 73.5%에서 2004년에는 74.6%로 상승
- 식료품은 일본의 불순한 일기와 중국에서의 생산가공기술 향상에 따라 21.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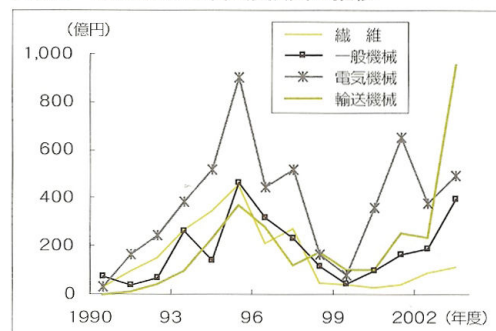
▶ 對중국 직접투자의 추이

- 2004년 4월~9월기에 對중국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89.2% 증가한 2,948억엔으로 대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세어는 14.6%로 상승해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누르고 제2위의 투자국이 됨

▶ 업종별 對中 직접투자

- 90년대에는 전기기계, 일반기계, 섬유분야가 많았지만 2001년도 이후 수송기계(자동차 완성차 및 관련부품)의 투자금액이 급증. 2003년도 수송기계의 對중국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305.5% 증가한 958억엔
- 섬유관련 제조업은 對중국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로 저하됐지만 아직도 중국은 이 분야에서 일본의 최대 대외투자국임

図表2 業種別の対中直接投資の推移



(資料) 財務省統計

<자료출처 : 三井住友銀行 Monthly Review 2005. 4>

♣ 제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기업상담회 일본측 참가기업 ♣

No	소재지	기업명	업종 주요제품	희망거래형태 희망업종	관심 있는 한국기업
1	新潟	(株)위드 (ウィード)	光触媒 · 음이온	수출(일본→한국) 제조위탁, 판매	광촉매, 음이온
2	富山	(株)시디엘 (シーデーエル)	IT 관련사업	수출입(일본↔한국) 업무제휴, 공동연구개발	(주)코뱅크, (주)아이넷, 유니온테크(주), 한국 P&ID(주), 아리랑무역, 카본나노테크
3	富山	(株)未来観光 未来観光戦略会議(産学官 NPO)	관광여행업	업무제휴 관광 및 관련상품개발	北陸에 관심있는 여 행사, 광역 여행진출 단체
4	富山	(有)IMS企画	商品企画, 貿易 폴리머전지	수입(한국→일본) 업무제휴	폴리머전지 개발
5	富山	HOKUSEI PRODUCTS Co.Ltd..	非鉄金属加工製品, 機能 필 름(フィルム)製品의 기획, 제조, 판매	수입(한국→일본) 화학, 의약품, 화장품	유니온텍(주)
6	富山	三光合成(株)	harness, 프린터·복사용 사 프트等 切削, header品, torsion spring, 코일, lamp, 自動車用 家電用 프레스部 品, 自動車用 不織布, 自動 車用 家電用 프레스部品	수입(한국→일본) 전기전자기계, 금형, 일반기계, 금속제품, 정밀기계, 자동차, 섬 유	(주)CAP, (주)成林T & T, (주)韓成, (주)TAK, (주)廣信AIR-TECH, ANAIL TECH, UNION TACK(주), E-테크놀로 지(주), 新和社, (주)三 元, 大明E.N.G
7	富山	(株)다카기세이코 (タカギセイコー)	플라스틱製品, 플라스틱成形 用 금속의 제조·판매 携帯電話用, 情報処理機器 用, 2輪車·4輪車범용 차량 용, 주택관련용 등의 각종 플라스틱제품	수입(한국→일본) 금형	
8	石川	(株)호쿠친 (ホクチン)	종합식품 제조판매 작은 물고기를 중심으로 한 안주·간식 진미 각종 제품 및 鹽干 가공품	수출(일본→한국) 식료품	현대, 신세계, E-mart
9	石川	NTT DATA HOKURIKU CORPORATION	전기통신사업 환경 정보에 관한 각종 시 스템, 도로 ITS에 관한 각종 시스템, 적설 정보에 관한 각종 시스템		(주)애니넷
10	石川	有限会社 情報流通経済 研究所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관련 되는 컨설팅	수출입(일본↔한국) 대리점계약, 업무제휴 정보기술	
11	福井	日華化学(株)	化学品等製造販売 섬유가공용 계면활성제	섬유·의료 화학·의약·화장품	섬유·의료 화학·의약·화장품
12	福井	江守商事(株)	도매업 유기화학, 환경관련제품		
13	福井	알케그룹 (アルケグループ)	企画·開発·販売	수출입(일본↔한국) 기술협력, 업무제휴	금속, 플라스틱, 섬유 ·의료
14	福井	(株)타케다레이스 (タケダレーズ)	編レイス製造	수출(일본→한국)	레이스 제품

會員 動靜 & 短信

■ **조석래(趙錫來) 회장**((주)효성 회장은 6월 20~2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전경련 「제18차 한미재계회의」에 한국측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총회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석래 회장은 양국 경제계가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데 이날 회의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한미재계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미 양국 경제계 협력 방안을 논의·실천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한·미 기업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해 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동으로 촉구하였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 **우석형(禹石亨) 부회장**((주)신도리코 회장)은 지난 6월 29일 사무기기 전문회사 신도리코가 '디지털오피스 컨설팅 기업'으로 변신한다고 선언했다. 신도리코는 단일 사무기기만 판매·관리하던 기존 사업에서 벗어나 복사기, 팩스, 스캐너 기능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맞춤형 사무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한은행(은행장 신상훈)**은 6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 “2005년도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수여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56명으로 구성된 전경련



기업윤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6월 29일 개최된 2005년도 제1차 기업윤리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에 더욱 진력하고 경제활력 회복에 앞장서는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투명사회협약 이행과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한 유기적 활동을 강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손경식(孫京植) 부회장**(CJ(주) 회장)은 6월 15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서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미국 LPGA 경기인 CJ나인브릿지 클래식을 유치하고, 세계 100대 골프클럽 대항전인 WCC를 여는 등 제주도를 세계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 **신동빈(辛東彬) 부회장**(롯데그룹 부회장)은 올해 초 서남아시아의 지진해일(쓰나미) 피해 지원금으로 73억원을 내놓고,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며 6월 28일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 **현명관(玄明官) 부회장**(삼성물산(주) 회장)은 6월 7일 제주대학교에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여기서 "현재 우리의 전략품목, 즉 성장엔진의 경쟁력은 필연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는 '경쟁력이전의 법칙'을 내세우며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것을 강조했다.



■ **이길현(李吉鉉) 감사**((주)경원 회장)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을 수훈했다. 6월 24일 주한일본대사관저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교류 및 우호친선촉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旭日中綬章 훈장을 받았다. 이길현 감사는 일본 전문경제통으로서 지난 30여년간 일본에서 삼성JAPAN(주) 대표이사, 대일투자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교류에 힘써왔다.



■ 6월 9일 개최된 한국철강협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제6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포스코 윤석만** 부사장은 은탑산업훈장을, **동양석판(주) 손봉락** 회장은 철탑산업훈장을, **동국제강 김영철** 부사장은 산업포장을 각각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준(朴泰俊) 명예회장**(포스코 명예회장), **이운형(李運珩) 부회장**((주)세아제강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주) 회장**, **홍영철 고려제강(주) 회장** 등 내로라하는 '철(鐵)의 CEO(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 우리협회 사무국은 6월 17일 직원간 단합을 위해 한일재단 임직원과 함께 남이섬에서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알림> 우리협회는 그 동안 쌓아 온 한일간 경험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고 명실상부한 민간경험 채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회원사 확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주변에 있는 좋은 기업을 당협회 **회원사로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02-3014-9877 총무과장)

<알림> 한일경제협회 소식지에 게재를 희망하시는 기사(회원·회원사 동정, 칼럼 등)가 있을 경우 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02-3014-9877 총무과장)

<사무국 직통전화·이메일>

허남정 전무이사	njhuh@kjc.or.kr
유봉우 사무국장	02-3014-9833 bwryu@kjc.or.kr
조덕묘 차장	02-3014-9855 dmcho@kjc.or.kr
김정호 차장	02-3014-9866 jhkim@kjc.or.kr
심규진 과장	02-3014-9877 kjshim@kjc.or.kr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理事會員社(46個社)

會社名	代表者
(株)冕元	李吉鉉 會長
금호산업(주)	오세철 사장
대우증권(주)	손복조社長
大韓商工會議所	朴容晟 회장
대한전선(주)	임종욱 대표이사
大韓製糖(株)	薛元鳳 會長
(株)大韓航空	趙亮鎬 會長
동국제강(주)	장세주 회장
동아제약(주)	姜信浩 會長
東洋物産企業(株)	金熙勇 회장
東洋製鐵化學(株)	李秀永 會長
東一紡織(株)	徐敏錫 會長
LOTTE製菓(株)	韓秀吉 代表理事
(주)보광	안명호 대표이사
산업연구원	오상봉 원장
삼부토건(주)	정진우 사장
三星物産(株)	玄明官 會長
(株)三養社	金 鈞 會長
(주)삼양제믹스	김 랑 사장
삼양화성(주)	김경원 대표이사
三煥企業(株)	崔用權 會長
샘표식품(주)	박승복 회장
(株)SINDORICOH	禹石亨 會長
新韓金融持株會社	羅應燦 會長
CJ(株)	孫京植 會長
SK텔레콤(주)	김신배 사장
LG石油化學(株)	成在甲 顧問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곽정소 회장
全國經濟人聯合會	姜信浩 會長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金容九 會長
코린텍스(주)	吳聖銖 會長
(株)POSCO	이구택 會長
(株)豊山	柳 津 會長
韓國經營者總協會	李秀永 會長
韓國機械産業振興會	尹永錫 會長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배영기 회장
韓國貿易協會	金在哲 會長
韓國輸出入銀行	辛東奎 은행장
한국외환은행	로버트 팔런 은행장
韓國PENTLAND(株)	朴世英 會長
(株)HANWHA	이순중 副會長
해태제과식품(주)	이폴창 대표이사
현대종합상사(주)	전명현 사장
호남석유화학(주)	이영일 대표이사
(주)HOTEL LOTTE	장경작 사장
(株)曉星	趙錫來 會長

一般會員社(42個社)

會社名	代表者
고려제강(주)	홍영철 회장
(주)고합	최삼길 사장
교세이국제특허정보(주)	박남숙 대표
(주)금복주	김홍식 회장
남덕물산(주)	용을식 대표이사
(주)남영L&F	남상수 회장
大邱商工會議所	盧喜燦 會長
(주)대농	홍성일 전무이사
大成GROUP	金英大 회장
대신증권(주)	양재봉 명예회장
(주)대우	이석희 상담역
대한해운(주)	이진방 사장
(주)데코	박성경 사장
동국무역(주)	김수강 사장
동양석판(주)	손봉락 회장
(株)東遠F&B	朴仁求 사장
(주)백산	김재우 사장
삼남석유화학(주)	김경원 사장
삼성전자(주)	윤종용 부회장
삼성중공업(주)	김진원 사장
(株)三一	강제호 대표이사
(株)世亞Besteel	李承輝 代表理事
(株)世亞製鋼	이종영 代表理事
法務法人 世宗	辛永茂 代表辯護士
(주)신한은행	신상훈 은행장
(주)씨이먼	우병서 대표이사
(주)쌍용	조국필 사장
SK네트웍스(주)	정만원 사장
(주)우리은행	황영기 은행장
전방(주)	김창성 명예회장
조선내화(주)	이화일 회장
GS Caltex(株)	許東秀 會長
지엠대우 오토앤티크놀로지	닉 라일리 사장
(주)진로	박유광 사장
태창철강(주)	유재성 회장
(주)POSCO건설	한수양 사장
韓國生産性本部	金在鉉 회장
韓國纖維産業聯合會	朴成喆 회장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윤종용 회장
현대자동차(주)	정몽구 회장
(주)HOTEL신라	이만수 대표이사
興和工業(株)	崔明煥 副會長

<2005년 7월 현재>